

신분증 없이 비행탑승...구멍 난 항공보안

60대 여성 김해서 신분증 확인 없이 김포공항행

김포공항 도착 때까지 보안요원 별도 저지 없어

부산지방항공청, 사실관계 확인중...파악후 조치

지난달 탑승객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 국내 공항에서 이달 10일 신분증이 없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해 목적지까지 도착한 것으로 파악돼 공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앞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은 지난달부터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탑승객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안요원이 탑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께 김해공항에서 60대 여성 A씨가 신분증이 없이 항공기에 탑승해 목적지인 김포공항까지 도착했다. 당시 보안요원 A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항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 당일 딸 B씨와 김해공항에 온 A씨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항공권을 가지고 출발장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공권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보안요원이 A씨 항공권에 발권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고, B씨는 다시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다고 한다.

발권을 마친 B씨는 자신의 신분증과 A씨의 항공권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준 뒤 항공기까지 탑승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일정을 마친 A씨 모녀는 당일 오후 7시께 김해공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김포공항 출발장에서 보안요원이 A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그제서야 A씨도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는 보안요원에 상황 설명을 하



고 당일 오전 김해공항에서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해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최근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전국 14개 공항에서는 탑승객의 신분증 강화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화 조치에 따라 국내 공항들은 탑승객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확인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승객 30%에 대해

보안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김포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의 출발장은 혼잡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승객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을 해야 하지만 소홀한 부분이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탑승객의 신분증 강화 조치는 타인의 신분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닌 단순 신분증 미지참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무안소방,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예방 현장 지도방문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난 6일 관내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현장 지도방문을 실시 했다.

무안소방서에서는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방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설 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 등 재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현장 지도방문간 주요 내용은 △최근 숙박업소 화재사례 공유,전파 △시설 내 소방시설 사용법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소방차량 진입여부, 부쉬위치 확인 △출입구 등 적치물 이동조치 △관계자 안전지도 등으로 진행되었 다.

신보복(무안119안전센터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여러 개로 구획된 숙박시설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평소 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협조와 화재발생 시 ‘불나면 먼저대피’ 등의 의식을 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담양소방, 안전한 관광명소 만들기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군·곡성군 소재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보강, 안전지도·점검, 응급처치교육, 시책홍보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하였다.

이번 대책은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 중 하나로 ‘인명피해 ‘ZERO ZONE’ 안전한 관광명소 만들기’이며, 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 되었다.

이에 따라 담양소방서는 관내 죽녹원 등 5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인근 실내외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점검 및 관계인 안전컨설팅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안전한 행락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 홍보 등을 추진 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완도해경, 권총 사격훈련 실시로 업무 대처 능력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휴대총기 조작과 사용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완도해경서 실내 사격장에서 육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격 훈련은 경찰관 사격 능력 향상과 긴급 상황 대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휴직자를 제외한 경찰서·파출소·구조대·경비합정 근무 경찰관 총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5권총을 이용하는 이번 정기 사격은 개인별로 영정사격 5발 기록 사격 30발 총 35발을 발사하며, 사격 기록 점수를 경찰관 근무 평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성적우수자를 가려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격 전·후 완도해경 서장이 직접 교육을 통해 총기 조작마숙이나 장비관리 소홀 등의 실수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직원들에게 주시시키고 내실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요원 등을 배치·운영 중이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주 동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승체험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12일 오후 관내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주요 정체도로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 및 동승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소방차량 5대, 인원 50명이 참여해 길 터주기 훈련 및 동승체험을 진행했다. 훈련참가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상승 정체 구간 대한 긴급 출동 훈련 ▲긴급자동차 양보의 무 및 우선통행 요령 홍보 ▲전통시장 등 좁은 길 한쪽 주차하기 홍보 등이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언론인(기자 1명)과 일반시민(2명)에 소방차량 동승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 “친구 외삼촌 경찰이래”...막가는 ‘한강 실종’ 음모론

‘현 서울청 수사과장이 외삼촌’ 헛소문

당사자 “남자형제만...관련 없는 관계”



한강경찰대 대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의대생 A(22)씨 친구 B씨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

생 A(22)씨 사망 사건과 관련,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우후죽순 양산되고 있

다. 온라인에선 특정 인물들 A씨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B씨의 가족이라고 지목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인 최종혁 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B씨의 외삼촌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이에 최 과장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자신은 사건 관계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다”며 “저희 집은 남자형제만 있어서 제가 누군가의 외삼촌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제 개인적인 신상이나 지나치게 허위적인 내용들이 많이 양산된다면 차후에는 법적대응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B씨의 가족 중 유력자가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음모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 죽음에 B씨 책임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 없는 성급한 믿음을 바탕으로 퍼지는 소문들이다.

앞서 온라인에는 퇴직한 전 강남경찰서장인 B씨의 아버지 또는 외삼촌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라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측이 공식 해명에 나선 적도 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최근 페이스 북에 “현재 온라인상에 병원 특정 의료를 거론하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며, 병원 소속 의료진 가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루머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글의 게재 및 유포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